

의정부보호관찰소

○ 매체 : 시사N라이프(2026. 9. 4.)

○ 제목 : 의정부 11개 청소년 유관기관, 거리로 나섰다...“위기청소년 놓치지 않는다”

의정부 11개 청소년 유관기관, 거리로 나섰다... “위기청소년 놓치지 않는다”

-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주관,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치안·법률분야 11개 기관 참여
- 8월 28일 의정부역·행복로·구시가지 일대에서 현장 상담 및 위기청소년 발굴 활동
- 11월 20일에도 수능 계기 연합아웃리치도 실시쉼터 및 유관기관 중심으로 추진 예정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가 운영하는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이하 '포텐')가 8월 28일 의정부역과 행복로, 구시가지 일대에서 지역 내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치안·법률 분야 11개 기관과 함께 「2026년 하계 의정부시 연합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 이후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놓인 거리 청소년을 직접 만나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긴급지원, 전문서비스로 즉시 연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 보호·치안·법률 11개 기관 총출동

이번 활동에는 ▲의정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청소년분과(△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새말청소년센터, △꽃마리회복지원시설, △고산종합사회복지관)를 비롯해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SPO(학교전담경찰관), ▲의정부보호관찰소,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대응센터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지원을 펼쳤다.

현장에서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 현장 상담과 위기 스크리닝, 긴급구조 물품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상담·복지서비스 정보 안내 등을 진행해 지역 청소년의 호응을 얻었다.

김다정(15세, 가명) 양은 "의정부에 청소년을 위한 기관들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낯설게만 느껴졌던 보호관찰소 같은 곳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최현서(17세, 가명) 군은 "늘 힘이 되어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쉼터 외에도,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대응센터처럼 꼭 필요한 새로운 기관들을 알게 돼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혔다.



■ 캠페인 넘어 '발견-개입-연결' 현장 대응체계 가동

이번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기관이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보호·복지·치안 등 관련 전문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발견-개입-연결'의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는 거리 아웃리치가 단순한 홍보활동을 넘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안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청소년 안전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 활동을 총괄 기획한 한광열 간사는 "이번 연합아웃리치는 단순한 계도 활동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긴급구조와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개입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소년의 위기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지역사회의 여러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없도록 현장을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 수능 이후에도 연합 아웃리치 활동 이어진다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연합 아웃리치 활동은 하계에 그치지 않고 수능 이후로도 이어진다.

포텐을 비롯한 청소년 유관기관들은 오는 11월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의정부 일대에서 연합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이동과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기관들은 현장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확인하고 상담과 정보 제공,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와 제31조, 제32조를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의·식·주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와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 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정부지역에서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이사장 장영모, 상임대표 박현동)가 운영하는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031-837-1318),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031-829-1318),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031-871-1318, 010-2015-1318)가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928-1316)이 후기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있다.

포텐 오경옥 소장은 "여름철은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지역의 다양한 전문기관이 한마음으로 현장에 나선 만큼 청소년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청소년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안전망이자 든든한 청소년의 비발언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포텐 제공)